



**여객기, 화물기로 개조  
대한항공, MD-11  
5대 올 7월 인도**

대한항공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MD-11기종 여객기 5대를 화물기로 개조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첫 개조작업은 내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에 있는 맥도넬 더글러스사에서 있게 되며 대한항공은 올해 7월 개조된 화물기를 인도할 계획이다.

맥도넬 더글러스사는 여객기의 양쪽창문을 제거하고 화물창 및 팰릿을 설치하여 약 1백톤의 화물을 실을 수 있도록 개조하게 된다. 대한항공은 오는 96~97년에는 국내 정비시설을 활용, 자체 개조작업을 벌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한항공은 MD-11기종의 개

조로 줄어드는 여객기는 유럽 에어버스의 A330 및 보잉사의 B777기종 구매로 대체할 방침이라고 한다.

**각종 규제 완화  
美·加, 항공업계  
시장 개방**

미국과 캐나다 항공당국은 최근 미국 항공사들이 3년 이내에 캐나다 도시 전역으로 취항하고 캐나다 항공사들이 미국시장에 무제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교통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기본 협정에 서명했다.

이번 협정으로 양국 항공사들은 정부의 승인없이 요금을 변경할 수 있게 되며 미국의 10여개 도시에서 캐나다로 논스톱운항도 가능해지게 됐다.

**여객기 도입 추진  
삼성항공, 150석급 검토**

삼성그룹이 중형기 이상의 여객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삼성항공이 지난 11월 미국의 보잉사, 유럽의 에어버스사 등과 여객기 도입을 위한 실무접촉을 가진 사실이 확인돼 여객기의 사용목적에 대해 관련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이 구매를 검토하고 있는 기종은 보잉사의 B737(1백50인승), B767(1백60인승)과 에어버스사의 A320(1백60인승), A340(3백인승)등이며 맥도넬 더글러스사의 MD-80(1백70인승), 네덜란드 포커사의 F-70, F-100등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화물기로 개조할 MD-11 여객기

## 서울-중국간 정기노선 취항

### 아시아나·대한항공등 직항로 이용

서울~베이징(북경)간 정기직항 노선이 12월 22일 첫 취항했다.

12월 22일 오전 9시 첫 정기항공편인 서울발 베이징행 아시아나항공 331편이 출발한데 이어 대한항공 651편도 오전 10시 30분 북경으로 향했다.

중국국제항공 124편도 이날 오전 9시 40분 베이징을 출발, 낮 12시 20분 서울에 도착했으며 이날 오전 11시 40분에는 상하이행 아시아나항공이 출발해 양국간 본격적인 항공기 운항이 시작됐다.

12월 24일에는 대한항공 서울~톈진(천진), 서울~칭다오(청도)노선과 중국국제항공의 칭다오~서울노선이 12월 27일에는 서울~선양(심양)간 대한항공 정기편이 취항했다.

이로써 92년 8월 한·중 국교 정상화이후 2년 넘게 끌어왔던 항공노선이 개설돼 양국간 인적, 물적교류가 급진전되고 서울이 동북아 항공교통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게 됐다.

## 직항노선안 95년중반 완결

### 대만-중국, 특별구역 설치 방안 검토

대만은 중국과 직항 항공노선을 개설하는 문제를 올 6월까지 협의를 완결하겠다고 마오 치-쿠오 교통체신부 부부장이 말했다.

그는 북경측이 대만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더 이상 취하지 말아야만 직항 항공로 개설을 위한 회담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 95년 4월에 상세한 계획안을 마련한 뒤 두달 후 내각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대만은 이와는 별도로 중국과 직항 해상로를 개설하기 위해 특정항구에 특별구역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대만 중화항공공사 40억달러치 항공기 구매

대만의 중화항공공사는 40억 달러가 소요되는 기단확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향후 10년간 46대의 여객기를 구입할 예정이다. 대만의 국영항공사인 중화항공공사는 현재 37대의 여객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2003년까지 67대로

보유대수를 늘이기로 했다. 한편 도입예정인 46대중 30대는 신규 수요이고 16대는 대체수요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칠수될 기종은 A300 B4-200 6대, B747SP 4대, B747-200B 3대, B737-200 3대등 16대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매계획을 보면 B737-200 항공기의 대체 및 지역 수송능력 확대를 위해 150인승급 10대 이상을 구매하는 것이 시급하여 B737-400, MD-90, A320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7년도에 서비스에 들어갈



CAL사가 퇴역시킬 B747-200기

항공기에 대한 구매결정은 1995년초에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는 4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동 항공사는 A300-600R 항공기를 5대 운용하고 있는데 15대 증가시키는 방안을 고려중이며 B747-400을 5대 운용하고 있는데 추가로 B747-200 화물기 3대를 보유하기를 원하고 있다.